

2014년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인천발굴성과전Ⅱ
관람 가이드

인천,
마한과
만나다
2014. 7. 17 Thu
~ 11. 16 Sun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Geomdan Prehistory Museum

인천,
마한과
만나다
2014. 7. 17 Thu
~ 11. 16 Sun

- 발행일 : 2014년 7월
- 발행처 : 검단선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7 TEL. 032)440-6790
- 디자인 : 한맥디자인(표지), 일해출판인쇄사(본문)

이 책의 내용은 해당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자료는 서경·중앙·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 전시관람 시 진열품은 눈으로만 보시고, 진열장은 만지지 마세요.
- 아이들과 전시물에 대해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해보세요.
- 전시해설 시간은 하루 세 번 (11시, 1시반, 3시)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꼭 활용해 보세요. 전시설명을 들으면 전시관람이 더 재밌어 집니다.
- 전시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01. 전시를 들어가며

이번 전시는 최근 발굴된 삼국시대 초기 유적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표 안에 있는
〈원삼국시대, 흙무지무덤, 조개무지, 집터, 구덩이, 움무덤, 널무덤〉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전시관람을 하시다 보면 전시패널에서 관련된 설명을 읽을 수 있으며, 곧 궁금한 점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보조책자를 활용하여 쉽게 설명해주세요.

- ▶▶▶ 삼국시대 초기/삼국시대 전기/원삼국시대
기원전 100년 ~ 서기 300년, 고고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3세기 이후 성곽과 도시, 왕궁 등이 출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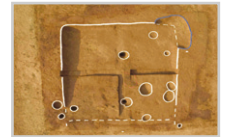


- ▶▶▶ 흙무지무덤(분구묘)
무덤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구덩이를 파서 목관이나 목곽을 안치한 무덤입니다.



- ▶▶▶ 조개무지(패총)
옛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류의 껍데기들이 쌓인 것입니다.

- ▶▶▶ 집터(주거지)
옛날 집이 있던 자리로 목재류들이 썩어 없어져서 자국만 남은 자리입니다.
집안에는 기둥구멍과 불 댕자리, 구덩이, 벽을 따라 돌아가는 내부 도랑 등이 보입니다.



- ▶▶▶ 구덩이(수혈)
어떤 시설이 있던 자리로 내부에는 짙은 흑갈색의 흙속에 옛 유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움무덤(토광묘)
땅을 파고 구덩이에 시신을 묻었던 무덤의 형식입니다.



- ▶▶▶ 널무덤(목관묘)
땅을 파고 구덩이에 시신이 들어간 관을 묻었던 무덤의 형식입니다.



- ▶▶▶ 마한/진한/변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기원전 300년경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소국연맹체로서 나중에 각각 백제/신라/가야가 됩니다.



02. 삼국시대 초기의 집터와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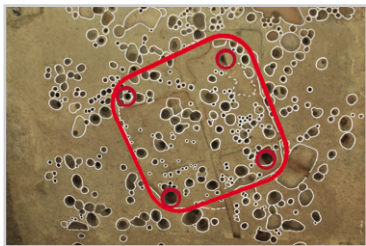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은 보셨나요?

특별전시실을 보고 관람하신다면 계양구 동양동유적과 서구 불로동 유적 코너도 나중에 주의해서 관람해보세요.

이 유적들도 인천의 삼국시대 초기 유적들입니다.

▶▶▶ 네 개의 기둥이 있는 집터(사주식 주거지)

: 옛 사람들 집의 바닥 모양은 보통 원형이나 사각형을 띠고 있습니다. 네모난 바닥의 집터는 네 귀퉁이에 무게를 받치는 큰 기둥을 세워 지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깊이 박은 기둥구멍이 있는 집터도 있고, 기둥구멍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 출입구가 있는 집터(묘(여)자형,凸(철)자형, 육각형주거지)



: 커다란 방에 작은 방이 붙거나 출입구로 썼던 통로 같은 것이 튀어나온 집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풍납토성의 육각형 주거지가 있는데, 뒤에 붙은 큰 방의 형태가 육각형입니다. 한반도 영동, 영서 지방, 그리고 서해안지역을 제외한 한강유역에서 대체로 보이는 집자리 형태입니다.

▶▶▶ 도랑을 가진 움무덤(주구토광묘)



: 무덤 주변에 눈썹모양의 도랑이 돌아가는 널(목관)을 묻은 무덤의 형식입니다. 경기남부에서 충청내륙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랑을 가진 흙무지 무덤과 유사하지만 지역적으로는 나뉘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흙무지무덤(분구묘)



: 무덤 주변 전체에 도랑이 돌아갑니다.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구덩이를 파서 목관이나 목곽을 넣은 것으로 충남, 전북, 경기 서부 등 서해안을 끼고 분포합니다. 무덤에 함께 발견되는 부장유물이 화려합니다.



03. 삼국시대 초기의 대외교류



운북동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반에 낙랑군이 아닌 다른 중국지역 출신의 한나라 사람들이 인천 연안의 도서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각종 중국계 유물들이 보이는 유적입니다.

운남동에서도 오수전과 철경동촉이 출토되어 외부인과의 교류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리화살촉(철경동촉)

: 철의 뿌리를 가진 청동 재질의 촉입니다. 쇠나라는 활의 일종에 쓰이던 화살촉입니다. 중국의 유물로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유행하였으며 낙랑지역에서는 무덤에 묻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무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덤보다는 거의 대부분 집터나 성격불명의 구덩이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운북동에서는 13점의 촉이 확인되었습니다. 낙랑군 외부 지역에서 출토된 동촉들은 '한(漢)'의 지배가 이르는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된 최첨단의 전쟁무기이며 '한(漢)'은 이러한 전략 물자가 이민족의 거주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동전(오수전)

: 오수전은 기원전 118년에 처음 주조된 것으로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화폐입니다. 운북동의 오수전은 글씨의 자체와 주조형식을 보았을 때 기원전 60년 이전에 주조된 동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국계 토기와 기와

: 운북동 토기들은 전국시대 이래 한(漢)나라의 토기에서 확인되는 형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낙랑지역의 토기와 유사한 것은 소수만이 확인되어 낙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한문화(漢文化)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남긴 토기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부뚜막

: 벽을 세우고 솔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솔걸이 부분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익히기 편하게 한 시설입니다. 그냥 맨 바닥에서 불을 때우는 것보다 발전한 것입니다.





04. 삼국시대 조개무지(패총)

운남동 조개무지에는 다른 곳에서는 썩어서 찾지 못하는 많은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삼국시대 초기 활용되었던 조개류, 어류, 포유류 등 많은 동물 뼈들이 보존되어서 당시 식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른 조개무지에 비해서 어류의 이용은 활발하지 않아 패류 채취나 어로가 주목적인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농경·수렵·어로 등의 생업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물로서는 사슴·멧돼지·소·말·닭·개의 뼈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사슴류의 이용이 두드러집니다.

사슴 뼈 중 고기가 많은 부위는 해체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고 뼈도구 소재로 좋은 것들은 조개무지에 넘겼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슴과 돼지 어깨뼈의 견갑골의 일부에서는 점치는 뼈의 흔적이 확인 됩니다.

사슴고기 등을 외부로 방출하고 뼈도구 소재를 획득한 사실이나, 제의에 사용되는 점치는 뼈 등이 다량 확인된 사실은 운남동유적이 단순한 해안가 마을 이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뼈도구(골각기)의 종류



▶▶ 점치는 뼈(복골)

: 점을 치기 위해 이용한 동물 뼈입니다. 사슴 또는 돼지의 어깨뼈에 구멍을 내거나 불을 지진 후 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관찰하여 점을 보았습니다.



▶▶ 찌르는 도구(자돌구)

: 현재의 작살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도구입니다. 사슴 뼈를 이용해 길고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심이 얇은 곳에서 자루를 쥐고 찔러서 생선을 포획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 칼손잡이(도자병)

: 칼의 손잡이로 칼날을 끼워 사용한 것입니다. 손칼은 만능도구로서 각종 도구를 만들거나, 음식재료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 목걸이(修飾)

: 동물의 이빨들을 구멍만 뚫어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장식으로 목이나 가슴에 이용하였습니다.



▶▶ 촉

: 뼈로 만든 화살촉입니다.



▶▶ 침

: 뼈로 만든 바늘입니다. 가죽에 구멍을 뚫거나 옷을 만들 때 사용 하였습니다.



5. 삼국시대 초기의 철기와 토기

삼국시대에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생활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전부터 쓰던 돌도구와 뼈도구도 사용되었습니다.

철기로 만든 여러 무기와 도구들은 귀족품으로 무덤에도 많이 부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기들은 생활유적에서 많이 찾아지고 무덤에서는 짧은 목 항아리 등 특정한 종류만 묻혀집니다.

무 기 류

▶▶▶ 세형동검

: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한반도의 동검으로 나중에는 삼국시대 초기의 무덤에서까지 철기와 함께 확인됩니다.



▶▶▶ 긴 철검(철제장검)

: 날이 양쪽으로 나 있는 것으로 중국 한나라의 무기가 도입되었습니다. 3세기까지는 주로 '검'이 쓰이다가 4세기 무렵 '도'로 전환됩니다. 낙랑지역에서는 한식검이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 고리자루큰칼(환두대도)

: 칼자루의 끝에 고리가 달려 장식되고 있습니다. 검과 칼은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로, '검'에서 '도'로 전환된 것은 찌르는 무기에서 베는 무기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남한지역에서는 대형 무덤에서만 부장되어 권력의 상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철창(철모)

: 철창은 적을 찌르는데 사용하는 무기로 검, 칼 등과 함께 무덤에 부장되는데, 보통 1개가 보이지만 다수의 철창이 함께 묻어지기도 합니다. 창끝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능적으로 실용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 철촉



: 화살촉은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공격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형태가 개선됩니다. 무덤에도 점차 대량으로 부장되어 철촉의 사용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 기 류

▶▶▶ 항아리(호)



: 바닥, 입구, 전체적인 형태, 붙은 장식에 따라 그릇의 이름을 붙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고운 흙으로 만든 회백색의 항아리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붉은 토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앞의 것은 무덤에 많이 묻혔고, 뒤의 것은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토기의 형태에 따라 특정 세력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 마한과 한성백제의 토기



: 마한과 관련시키는 토기들은 동근밑항아리를 비롯하여 깊은 바리, 계란 모양토기, 귀가 붙은 항아리, 겹아가리항아리, 큰 독 등입니다. 한성백제 초기 단계에 와서는 실용성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릇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검은간토기, 곧은입항아리, 세발토기, 굽다리 접시 등이 있으며,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그릇에도 문양과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 이형토기



: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토기와는 다른 형태의 토기입니다. 토기의 수량이 많지 않고 그 기원이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 유적에서 발견되는 횡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그릇과 같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인천과 파주 일대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